

《당신의 차와 이혼하라》  
자동차와 ‘살짝,  
격리된 삶을 살아보리라 다짐하지만...

얼마 전 아내가 15년 넘게 장롱에 고이 모셔두었던 운전면허증을 꺼내 들고서는 '이제 차는 내가 접수한다'는 뉘앙스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더니, "운전연수를 하겠다"고 선포했다. 그 선포를 듣고서 한편으로는 반가움이,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동한다.

한편의 반가움이란 장거리 운전의 고통을 분담할 수 있다는 알팍한 생각일 터이고, 한편의 아쉬움이란 이제 차는 더 이상 '내 전유물'이 될 수 없다는 마음이라. 네비게이션까지 장만하는 등 북새통을 펼칠 때는 알팍한 반가움이 승하더니만, 주차장 기둥과 멋지게 키스시킨 앞 범퍼의 상흔을 애교 섞인 미소 한방으로 갈무리할 때는, 4년 남짓 애정을 쏟아 부은 애마에 대한 미련을 하루 빨리 끊는 것이 맘 편히 사는 길이라는 생각까지 해보게 된다. 그러나 어디 그 미련이 무 자르듯 '썩둑'하고 잘라낼 수 있는 미련이던가. 그렇게만 된다면야 이렇게 마음 쓸 일도 없지 않겠는가.

그러나 어찌되었건 슬슬 내 애마와의 '거리 두기'를 시작해야 한다. 이 책을 다시금 생각하게 된 것은 순전히 타의에 의한 것이지만, 지금부터라도 자의에 의해 '애마'와의 공식 결별까지는 아니어도 저자의 주장처럼 "어디에 갈 때 반드시 차를 몰고 가야 한다는 고정 관념에서 탈피"하려는 숨겨진 의도 또한 없지 않다.

자동차와의 눈먼 사랑

《당신의 차와 이혼하라》를 꺼내들고는 먼저, 내 마음에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. "정말, 진짜로, 지금 당장 차를 처분할 자신이 있는가" 말이다. 그러나 서슴없이 튀어나오는 대답은? "아니다." 그것도 고개까지 절레절레 흔들면서 말이다.

저자의 주장처럼 난 이미 자동차와 '눈먼 사랑'에 빠진 것이다. 《도로의 종말》을 쓴 볼프강 주커만은 "우리는 차를 열렬히 사랑하므로, 우리가 그 결점을 보지 못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"라고 지적했다. 그래, 난 이미 자동차와 열렬히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. 아내가 두 아이를 데리고 지하철로 버스로 옮겨 다니는 것은 마음이 쓰여 어디든 '태워다 줄' 용의는 있지만, 애마를 '통째로 내줄' 용의는 없었던 셈이다.

사실 자동차는 우리에게 이동성과 속도를 제공한다. '뚜벅이'로 여행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1~2Km를 걸어 산수를 구경하려면 적어도 한두 시간은 족히 걸린다. 그러나 자동차라면 5분도 걸리지 않아 '쭈욱' 구경할 수 있다. 물론 주마간산(走馬看山) 격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한국인의 여행 체질에도 잘 맞는다. 술한 외국 여행지에서도 '빨리빨리'를 외치는 한국 사람들에게 자동차마저 없었다면, 그 술한 해외여행은 아마도 생겨나지 않을지도 모른다.

그러나 그 달콤한 동거도 서서히 삐걱거리고 있다. 이유는 다양하다. 자동차가 대기에 미치는 해악, 기름 유출과 그 밖의 환경오염, 자동차와 함께 살면서 느낄 수밖에





《당신의 차와 이혼하라》  
 케이트 앨버트 지음 | 박윙희 옮김 | 돌베개 | 366쪽 | 값 13,000원

없는 잡다한 결점들, 그리고 실제로 지불해야 할 비용들, 거기에 가장 큰 비용인 자동차 사고로 생겨나는 무수한 희생들까지.

그러나 어찌 보면 이러한 사유들은 '타의'에 의한 것 같다. 그러나 저자는 타의가 아니라 '자의'에 의해 선택했고, 자의에 의해 우리가 고통받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한다. 그래서 '권하는 글'을 쓴 미국의 생태운동가이자 《자연 예찬》(*In Praise of Nature*)의 작가인 스테파니 밀스는 이 책을 두고 "자동차가 문명과 지구물리학적 조건에 미치는 영향(위대한 현대의 비참한 자동차 중독)에 대한 앨버트의 매혹적인 설명은 기술이 가치중립적이라는 어리석은 주장에 대한 통쾌한 반박이다"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.

#### 당신의 두 다리가 답이다

저자는 공허한 메아리로 자동차가 우리에게 주는 해악들을 설명하지는 않는다. 자동차가 정말 우리에게 '꼭' 필요한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물음과 함께 '당신의 차와 어떻게 이혼할 것인가'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방법들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.

가장 좋은 방법은 이것이다. 바로 '당신의 두 다리'. 과체중을 예방하고 콜레스테롤을 억제한다. 당뇨병을 예방하며, 골밀도를 높여 골다공증을 예방한다. 무엇보다 정신 능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. 결정적으로 수명을 늘린다. '참살이'(웰빙)가 화두인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뉴스가 어디 있겠는가.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에도 걷기는 유익하다. 공동체 의식을 회복할 뿐 아니라 차가 줄어들면 당연히 안전도가 높아진다. 환경

에도 유익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긴다.

자동차가 없는 세상에서 '자전거'는 '나름의 스피드'를 경험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다.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는 교통사고 사망률 세계 1위를 몇 년째 고수하고 있는 한국에서도 그 가능성이 입증되지 않았는가. 다양한 연료의 자동차를 개발하는 것,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돕는 공동교통 등 저자가 제시하는 '자동차와의 이혼 방법'은 다채롭다.

#### 슬며시 걱정부터 앞서다

저자는 "자동차가 미국 산업주의와 자원 채취의 연결고리일 뿐 아니라 1세기에 걸쳐 시간과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빼돌린 도난 사건의 핵심 용의자이기도 하다"는 사실을 책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다. 풀꽃평화연구소 최성각 소장은 "나는 이 책을 읽고 이혼을 결심했다"고 비장한 각오를 '추천의 글'을 썼다. "경유차를 몰고 다니는 나를 부드럽지만 마음 아프게 고문했다"는 최 소장의 말은 역시나 경유차를 모는 기자의 마음까지도 고문한다.

어찌되었건, 이제 자동차와는 '살짝' 격리된 생활을 살아야 한다. 그것은 아내로부터 촉발된 일이지만, 책과 함께 한 며칠 사이 '자의로' 결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도 했다. 슬며시 걱정부터 앞선다. 자동차와 '살짝 격리된 생활'을 살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이 벌써부터 밀려든다. ☞

정동석 기자